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 민간경비의 조절효과 -

김 다 은* · 박 종 승**

〈요 약〉

사회 안전과 관련해 범죄두려움의 중요성이 날로 더해가는 현실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이 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그 적실성이 높다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는 범죄피해에 대한 위험인식과 그 두려움을 가중하는 대표적 요인인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민간경비 유무의 영향력과 방향성을 검증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년도 자료를 활용하고, STATA 13.0을 통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민간경비 중 경비원의 경우 일반적 두려움에 주효과만을 나타냈으며, 지역 무질서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와 달리 보안장치의 유무는 범죄두려움에 정적인 효과를 보였고, 이는 개인이 특수 잠금장치, 방범장치, 도난 경보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높은 수준의 범죄두려움을 형성하고 있음을 뜻한다.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보안장치 유무의 조절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는 보안장치가 있는 경우, 보안장치가 없을 때에 비해 범죄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보안장치의 존재가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 범죄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효율성과 적합성 측면에서 보안장치의 설치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하고, 강화된 경비원의 역할과 책임, 재량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민간경비, 보안장치, 경비원, 지역 무질서, 범죄두려움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제1저자)

** 전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교신저자)

| 목 차 |
|---|
| I. 서 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 방법 IV. 연구 결과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

I. 서 론

최근 범죄는 양적 증가에 더해 흉포화·지능화·전문화 돼 사회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강남역 살인사건’, ‘오패산 총기사건’, ‘수락산 살인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는 범행 동기와 타겟이 모호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더하고 있다. 2016 사회지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절반에 가까운 45.5%가 사회의 전반적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끼고 있고, 안전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13.2%에 불과했다. 그 중 가장 주된 불안 요인은 ‘범죄 발생(29.7%)’이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을 비교할 때 현재 우리 사회의 안전상태가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위험해졌다’는 응답은 50%에 달했다(통계청, 2016). 이러한 결과는 물질적 풍요를 통해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시민의 안전에 대한 위협도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김기현, 2011)과 달리 우리 사회가 범죄 또는 범죄두려움으로 여전히 불안과 공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에 국민들은 사회 안전의 핵심 부분인 범죄와 그 두려움에 대해 적극적이며 세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경찰백서, 2016). 정부는 국민 체감치안을 높이기 위해 경찰 인력증원, 맞춤형 범죄예방활동 전개, 관제시스템 구축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경찰청 역시 2017년 정책목표를 ‘범죄 불안요인의 사전적 해소’로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치안 서비스를 통해 국민의 ‘안전’ 수요를 모두 충족하고, 범죄 불안요인을 제거하는 데에는 경찰의 인력과 예산상의 제약, 제한된 경찰장비의 사용 등의 한계가 있다.

민간경비는 이러한 공권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국민의 안전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등장했다. 미국의 많은 연구들은 민간경비 발전의 토대를 경찰의 무능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찾고 있는데(Benson, 1998; Bayley & Shearing, 1996; McCrie, 1992), 한국에서의 민간경비 발전 역시 그 궤를 같이 한다. 실제 2007년 3,387개였던 민간경비업체는 2015년 5,203개(경찰백서, 2016)로 2007년 대비 약 54% 증가해, 공권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국민의 치안 수요를 담당하면서 국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이렇듯 민간경비는 사회 안전을 지탱하는 한 축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그 역할과 책임도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과는 달리 범죄두려움과 민간경비에 관한 경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민간경비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필요성과 적용, 선진사례 소개, 개선방안 등의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고(조성구·김태민, 2012; 이민형, 2012), 경험적 연구로는 조직몰입·직무만족 등 민간경비원 개인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박성수·김미선, 2012; 이용주·장석인, 2012). 특히 2010년대 중반 이후 민간경비 연구는 양적·질적으로 급격한 감소를 보이고, 편향된 연구경향으로 인해 연구의 결과가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다(김용현, 2016). 이런 상황에서 민간경비의 활용이 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실증적 논의는 민간경비의 효과를 파악하고, 관련 연구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두려움에 지역 무질서가 미치는 영향을 앞서 분석하고, 민간경비의 존재 유무가 둘 간의 관계에서 조절 효과를 갖는지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지역 무질서는 범죄피해에 대한 위협인식과 그 두려움을 가중시키는 대표적 요인이므로(장안식, 2012), 핵심독립변수로 사용한다. 즉, 지역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을 가중하는 상황에서 민간경비가 그 두려움을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 핵심 변수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 그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범죄두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민간경비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강구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범죄두려움과 그 원인에 대한 논의

Garofalo(1981)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불안이나 위협에 의해 특정되는 감정적 반응으로 정의한다. 그러나 범죄두려움은 그 자체로 사회적 신뢰의 붕괴, 삶의 질 하락, 높은 예방정책 비용을 유발하므로(Hale, 1996), 사회과학연구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범죄두려움은 인식과 감정이 얽혀있는 복잡(Hough, 1995)한 개념이어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는 이를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Ferraro, 1995). 범죄두려움을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반적 두려움’은 취약성에 대한 일반적 느낌으로, 평소에 느끼는 범죄두려움을 측정하는 무형의 두려움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구체적 두려움’은 절도, 강간 등과 같이 구체적인 범죄에 대한 범죄피해의 가능성을 바탕으로 파생되는 두려움이다.

한편,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대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 다양한 차원의 요인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범죄두려움 결정 요인에 대한 대표적 모델은 취약성 모델과 무질서 모델, 사회통합 모델이다.

1) 무질서 모델

무질서 모델은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모델로, 지역사회의 특성을 포함시킴으로서 범죄두려움을 측정하는 요소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받는다.

무질서 모델에 따르면 지역사회의 질서붕괴는 곧 지역 무질서를 야기하고, 대중은 이를 심각하게 인식해 지역에 대한 불안감이 곧 범죄두려움으로 전환된다. 무질서 모형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하는 이론으로는 깨진 유리창 이론이 있다(Wilson & Kelling, 1982). 깨진 유리창 이론은 길가에 버려진 폐차나 쓰레기, 심각한 낙서, 깨진 유리창 등과 같은 물리적 무질서와 약물중독자, 술 취한 사람, 불량청소년 등의 사회적 무질서가 높을 때 범죄발생 가능성도 높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물리적·사회적 무질서 지표들은 비문화성 징표의 하나로 간주되는데(Perkins & Taylor, 1996), 이는 지역주민들 자체가 비문화적이기보다 거주하는 동네의 상대적 위험성에 대한 정보 부족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다(Lewis & Salem, 1986). 이러한 지역 무질서

의 징후는 지역주민의 지역개선을 위한 협력을 더디게 만든다고 설명한다(Skogan, 1990; 광대경·이승철, 2010). 실증 연구는 지역 무질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범죄 두려움도 높아진다고 밝혔다(이재영, 2011; Markowitz, et al., 2001).

2) 취약성 모델

개인적 요인들로 구성된 취약성 모델에서 취약성은 신체적·물리적 취약성과 사회적 취약성으로 구분된다(Skogan & Maxfield, 1981). 신체적 취약성인 연령이나 성별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취약성인 수입, 교육수준, 결혼상태 등도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노인이거나 여성일 경우 젊은 사람이나 남성일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할 확률이 높고, 이는 범죄에 대한 낮은 저항력으로 이어져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Braungart et al, 1980). 또한, 낮은 경제적 수준이나 사회적 지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무질서한 환경에서 거주하게 될 확률이 높을 것이고, 따라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본다(박정선·이성식, 2010). 결혼여부의 경우 사회적 구조와 관련돼 있고, 결혼한 사람인 경우는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 가족의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낮아진다(Mesch, 2000; Haynie, 1998).

3) 사회통합 모델

사회통합 모델은 사회해체이론을 바탕으로 전개된 모델이다. 구조적으로 해체된 지역사회는 지역 주민간의 사회유대를 약화시키고, 약화된 사회유대는 주민들로 하여금 지역 통제력의 인식을 낮춘다. 결국 낮아진 사회 통제 인식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파생된다는 설명이다(Taylor & Hale, 1986).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는 높은 인구 이동률, 이질적 인종 구성, 높은 가정 붕괴율 등이다. Rountree & Land(1996)은 지역주민이 사회통합수준이 높다고 인식하면 범죄두려움에 감소가 있을 것이며, 반대로 낮은 사회통합수준은 범죄두려움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이와 달리 시민간의 잦은 접촉은 범죄사건에 대한 노출 정도를 높여, 범죄두려움을 가중할 수 있음이 연구된 바 있고(이성식 외, 2012), 하층지역의 높은 사회결속력이 지역민의 범죄두려움을 높인다는 결과도 나타났다(Villarreal & Silva, 2006). 이러한 이유로 Sampson과 그의 동료들(1997)은 지역유대와 결속력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범죄통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 개념을 강조했다. 집합효율성은 지역 주민 간 신뢰와 유대, 비공식적 통제력, 즉 교제와 참여를 중시하는 것으로 집합효율성이 높은 지역은 범죄가 통제됨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지만, 그 정도가 낮을 때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줄 수 있다.(Gibson et al., 2002; 이성식 외, 2012에서 재인용).

2. 민간경비에 대한 논의

1) 민간경비의 의의

민간경비(Private Security)란 공적인(Public) 차원이 아닌 민간이 행하는 보호·안전 활동으로 경찰이나 사법기관의 제한된 치안서비스를 보충하기 위한 경비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주로 치안서비스를 제공받고자하는 특정한 의뢰자(Specific Client)로부터 제화 및 금전을 지불받아 계약관계 속에서 원하는 치안행위가 이루어진다. 「경비업법」 제 2조에 따르면 경비업을 경비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 규정하고 있고,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다섯 가지 역할로 나누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인력경비 뿐만이 아니라 도난방지시스템, 시스템경비, CCTV 등을 일컫는다 할 수 있다.

공동화이론에 따르면, 현대사회에서는 산업, 상업,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활영역까지 치안요구가 확대되었고, 범죄예방활동은 경찰역량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했다. 이는 범죄예방의 공백을 야기하게 되었고, 민간치안 서비스 공급이 필연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공배원, 2010). 결국 기존 경찰이 행하던 순찰활동이나 방범활동은 상업시설 내에서는 일반경비원이 담당하게 되었고, 사각지대에는 CCTV가 설치되었으며, 산업부문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이 작동하고, 개인은 방범장치 설치 등을 활용하고 있다. 즉, 민간경비는 경찰이 전통적으로 담당할 수 없었던 공간의 분화와 출현을 통해 성장할 수 있게 된 것이다(김성언, 2004). 한편,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경찰은 거시적인 질서와 범죄대응 등의 기능을 담당하고, 개인의 안전보호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몫으로 돌려야한다는 시각이 확산되었고, 이는 민간경비의 출현·발전을 촉진하게 되었다.

2) 민간경비와 범죄두려움

민간경비는 다양한 요인들로 인해 성장·발전했고, 그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민간경비에 대한 필요성이나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이민형, 2012; 김태환·권정훈, 2012). 먼저,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궁극적 목표인 민간경비는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의 실천전략을 응용하고 있다. 범죄행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이나 상황의 특징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체계적인 방법으로 환경을 설계, 관리, 조정함으로써 범죄행동의 기회감소와 범죄두려움 감소의 전략을 취하는 것이다(Vilata, 2012; 김성언, 2009).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간경비 서비스 가입이나 보안장치 등은 개인의 주관적 범죄두려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Norris & Kaniasty, 2002). 또한 민간경비원의 순찰행위가 지역 시민의 안전감에 긍정적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Messenger, 2008). 그러나 예상과 다르게 민간경비가 범죄두려움 감소에 항상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Gorden과 Buchanan(2013)에 따르면 보안장치는 오히려 불필요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외부방문객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가정하고 설치하는 방법장치는 오히려 전과 비교하여 높은 범죄두려움을 유발하였다(Collomb-Robert et al., 2004). 이는 보안장치나 민간경비 서비스 가입에도 불구하고 범죄두려움이 오히려 더 증가하거나, 범죄두려움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Norris & Kaniasty, 1992).

허경미·박영주(2008)는 기계경비시스템 이용이 소규모 상점주의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에서 ‘이중잠금장치, 방법창 설치여부와 상점문단속’을 주요 독립변수로 측정하였다. 범죄피해와 기계장치설치 여부에서는 부적인 결과가 나타났고, 방법장치가 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범죄피해가 줄어들었다. 범죄두려움과 방법장치 설치 여부에 있어서는 방법장치를 설치하더라도 범죄두려움이 억제되지 않았다. 조윤오(2015)의 연구는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 한국인 114명을 대상으로 한 주택 보안장치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CCTV설치, 창문 쇠창살 설치, 현관 이중자물쇠와 같은 보안장치를 설치했을 때 오히려 더 높은 범죄피해 두려움을 느꼈다고 설명한다. 김상운·신재현(2012)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가는 민간경비 선택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 강민완(2011)은 상점절도 방지를 위한 경비기법의 사용에 대한 연구에서 CCTV, 전자식 상품 도난방지장

치, 상점 점원의 활동은 절도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적시한 반면, 보안요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이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범죄두려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피해경험여부, 비공식적 통제를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지역 무질서와 민간경비가 범죄두려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 사이에서 민간경비가 조절효과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Ⅲ. 연구 방법

1. 분석대상 및 자료수집

이 연구는 2014년 전국범죄피해조사 자료를 사용했다. 전국범죄피해조사는 국민의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을 파악할 수 있으며, 주요 지표범죄 피해유무 및 피해율 추세 분석이 가능하다. 또한, 범죄 유형별 구체적 피해양상 및 시기별 변화를 분석,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일상생활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예방 및 피해감소를 위한 정책 제언을 활용하기에 적합한 자료이다(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층화확률비례추출법으로 16개 시도 및 동/읍면을 고려한 25개 층별로 층화시켰고, 총 6,960가구의 14,976명이 응답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6,960가구원 중 결측값을 제외한 6,919명의 표본을 최종 모형에 활용하였다.

2. 변수 설명

1) 종속변수

종속변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일반적 두려움은 총 2개의 문항으로 평균값을 사용하여 “밤에 혼자 집에 있을 때 두렵다”와 “밤에 혼자 동네 골목길을 걸을 때 두렵다”로 측정한다. 구체적 두려움의 문항은 총 8가지로 각각의 문항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여 ‘폭행, 절도, 성폭행, 손괴, 강도, 사기, 주거침입, 스토킹’의 항목을 평균값화 하였다. 두 문항 모두 리커트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매우 그렇다’까지 구성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2)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지역 무질서로 무질서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연구했던 사회통제론적 관점에서(Covington & Taylor, 1991; Lewis & Salem, 1986; 장안식, 2012)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로 구분한다. 물리적 무질서는 “주변에 쓰레기가 아무렇게나 버려져 있었고 지저분했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았다”, “주변에 방치된 차나 빈 건물이 많았다”로 각각의 평균값을 이용하여 측정했으며, 사회적 무질서는 “기초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다”, “무리 지어 다니는 불량 청소년들이 많았다”, “큰소리로 다투거나 싸우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다” 3문항으로 평균값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모두 리커트 5점 척도이다.

3) 조절변수

이 연구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조절변수는 민간경비 사용여부로, 민간경비는 일반경비원과 보안장치 유무로 구분한다. 따라서 방법수준을 측정하는 문항에서 경비원 유무를 ‘0=없음, 1=있음’으로 재코딩 하였다. 보안장치 유무는 방법수준 중 특수잠금장치, 방범창, 비디오폰, 출입카드, 도난 경보시스템 유무를 1문항으로 설정하여 ‘0=없음, 1=있음’으로 재코딩 하였다.

4) 통제변수

먼저 취약성 모델에서 제시하는 연령, 성별, 혼인상태, 최종학력, 범죄피해 경험을 통제변수로 활용하였다. 연령은 10대에서 70대 이상으로 7개의 범주로 나뉜 문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성별의 경우 남자=1, 여자=2로 코딩되어 있어 남자=0, 여자=1로 재코딩 하였다. 혼인상태는 미혼, 기혼, 이혼/사별의 집단문항을 더미화하여 사용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월평균 100만원 미만=1부터 1,000만원 이상=9로 9점 척도를 사용했다. 최종학력은 무학=1에서 대학원 이상=7의 연속변수를 그대로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경험은 8가지 유형의 범죄(폭행, 강도, 손괴, 사기, 성폭력, 주거침입, 스토킹) 중 응답자가 하나라도 경험한 적이 있는 경우를 각각의 평균값을 활용해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비공식적 통제는 지역 무질서와 집합효율성을 포함하는 항목으로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서로 잘 알고 지내는 편이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잘 도와준다”, “동네 아이가 낯선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면 도

외출 것 같았다”, “범죄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할 것 같았다”로 리커트 5점 척도이며, 평균값을 활용하여 사용하였다.

3. 분석 방법

이 연구는 2014년도 전국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첫째, 연구대상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변수의 기술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민간경비, 지역 무질서 등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했다. 끝으로 민간경비 존재유무가 범죄두려움에 대한 지역 무질서의 영향력을 조절하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고, 단계1에서는 통제변수만을 투입하여 공변수에 대한 효과를 알아보았다. 단계 2에서는, 단계 1을 바탕으로 지역 무질서와 민간경비를 투입한 후 공변수와 대비하여 그 설명력을 알아보고, 단계3에서는 민간경비와 지역 무질서의 상호작용항을 최종적으로 투입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 이를 위해 STATA 13.0 통계패키지를 활용한다.

IV. 연구 결과

1. 변수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성별은 여성이 4,302명(62.18%), 남성이 2,617명(37.82%)이었다. 연령의 평균은 53세로 50대가 1,495명(21.61%)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1,466명), 70대 이상(1,370명), 60대(1,162명), 30대(1,018명), 20대(392명), 10대(16명) 순으로 나타났다. 혼인상태는 기혼이 4,811명(69.53%)으로 다수를 차지했으며, 이혼 및 사별(1,466명), 미혼(642명)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소득은 약 339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인 1,400명(20.2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1,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39명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2,543명(36.75%)으로 가장 많았으며, 4년제 이상 대학 졸업(1,130명), 4년제 미만 대학 졸업(996명), 초등학교 졸업(96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범죄 피해 경험과 관련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5.38%에 해당하는 372명만이 범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지의 경비원의 여부는 있음(56.89%)과 없음(43.11%)로 10%가량의 차이가 난 반면 보안장치와 관련해서는 없음이 93.48%로 상당수의 조사 대상자들은 보안장치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비공식적 통제와 관련해서는 평균값이 3.12로 보통 정도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모두 무질서 하지 않은 편에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또한 범죄두려움과 관련해서도 일반적 두려움이 구체적 두려움에 비해 조금 높게 나타나기는 했으나,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두려움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변수의 기술통계 결과 (N=6,919)

| 항목 | | 빈도(명) | 백분율(%) | 비 고 |
|----------------|--------------------|-------|--------|-----|
| 성별 | 남성 | 2,617 | 37.82 | |
| | 여성 | 4,302 | 62.18 | |
| 연령 | 10대 | 16 | 0.23 | |
| | 20대 | 392 | 5.67 | |
| | 30대 | 1,018 | 14.71 | |
| | 40대 | 1,466 | 21.19 | |
| | 50대 | 1,495 | 21.61 | |
| | 60대 | 1,162 | 16.79 | |
| | 70대 이상 | 1,370 | 19.80 | |
| 혼인 상태 | 기혼 | 4,811 | 69.53 | |
| | 이혼 및 사별 | 1,466 | 21.19 | |
| | 미혼 | 642 | 9.28 | |
| 소득 | 월평균 100만원 미만 | 1,400 | 20.23 | |
| | 월평균 100~200만원 미만 | 1,073 | 15.51 | |
| | 월평균 200~300만원 미만 | 1,242 | 17.95 | |
| | 월평균 300~400만원 미만 | 1,331 | 19.24 | |
| | 월평균 400~500만원 미만 | 953 | 13.77 | |
| | 월평균 500~600만원 미만 | 571 | 8.25 | |
| | 월평균 600~700만원 미만 | 188 | 2.72 | |
| | 월평균 700~1,000만원 미만 | 122 | 1.76 | |
| 월평균 1,000만원 이상 | 39 | 0.56 | | |

| | | | | |
|---------|----------------|-------|-------|-------------|
| | 무학 | 464 | 6.71 | |
| | 초등학교 | 963 | 13.92 | |
| | 중학교 | 735 | 10.62 | |
| 최종학력 | 고등학교 | 2,543 | 36.75 | |
| | 대학(교) (4년제 미만) | 996 | 14.40 | |
| | 대학교(4년제 이상) | 1,130 | 16.33 | |
| | 대학원 이상 | 88 | 1.27 | |
| 피해경험 여부 | 피해경험 없음 | 6,547 | 94.62 | |
| | 피해경험 있음 | 372 | 5.38 | |
| 경비원 여부 | 없음 | 3,936 | 56.89 | |
| | 있음 | 2,983 | 43.11 | |
| 보안장치 유무 | 없음 | 6,468 | 93.48 | |
| | 있음 | 451 | 6.52 | |
| 비공식 통제 | 전혀 그렇지 않다 | 414 | 5.98 | 평균값 3.12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461 | 35.57 | |
| | 보통이다 | 2,902 | 41.95 | |
| | 그런 편이다 | 1,083 | 15.65 | |
| | 매우 그렇다 | 59 | 0.85 | |
| 물리적 무질서 | 전혀 그렇지 않다 | 2,183 | 31.56 | 평균값 2.25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182 | 45.99 | |
| | 보통이다 | 1,311 | 18.94 | |
| | 그런 편이다 | 235 | 3.40 | |
| | 매우 그렇다 | 8 | 0.11 | |
| 사회적 무질서 | 전혀 그렇지 않다 | 2,073 | 29.95 | 평균값 2.20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3,499 | 50.57 | |
| | 보통이다 | 1,185 | 17.13 | |
| | 그런 편이다 | 156 | 2.26 | |
| | 매우 그렇다 | 6 | 0.09 | |
| 일반적 두려움 | 전혀 그렇지 않다 | 1,801 | 26.03 | 평균값 2.35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665 | 38.52 | |
| | 보통이다 | 1,552 | 22.43 | |
| | 그런 편이다 | 837 | 12.1 | |
| | 매우 그렇다 | 64 | 0.92 | |
| 구체적 두려움 | 전혀 그렇지 않다 | 2,659 | 38.43 | 평균값 2.16 |
| | 그렇지 않은 편이다 | 2,992 | 43.25 | |
| | 보통이다 | 1,106 | 15.98 | |
| | 그런 편이다 | 157 | 2.27 | |
| | 매우 그렇다 | 5 | 0.07 | |

2.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 간 상관관계

종속변수인 범죄두려움을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으로 나누어 독립변수인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물리적 무질서는 99% 유의수준에서 일반적 두려움과 상관관계를 가졌고($r=.25$), 사회적 무질서 또한 99% 유의수준에서 일반적 두려움과 상관관계를 가졌다($r=.32$). 구체적 두려움과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질서도 각각 $r=.28$, $r=.37$ 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p<.001$). 따라서 범죄두려움과 지역 무질서 간에는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래 <표 2>를 통해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표 2> 변수 간 상관관계

|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
| (1) | 1 | | | | | | | | | | | | | |
| (2) | .59 *** | 1 | | | | | | | | | | | | |
| (3) | -.15 *** | -.13 *** | 1 | | | | | | | | | | | |
| (4) | .29 *** | .16 *** | .01 | 1 | | | | | | | | | | |
| (5) | .01 | .02 | -.07 *** | -.07 *** | 1 | | | | | | | | | |
| (6) | .004 | -.03 * | .39 *** | .18 *** | -.78 *** | 1 | | | | | | | | |
| (7) | .09 *** | .08 *** | -.41 *** | -.03 ** | .41 *** | -.41 *** | 1 | | | | | | | |
| (8) | .10 *** | .09 *** | -.51 *** | -.13 *** | .21 *** | -.42 *** | .56 *** | 1 | | | | | | |
| (9) | .06 *** | .08 *** | -.06 *** | .02 | -.01 | .00 | .03 * | .05 *** | 1 | | | | | |
| (10) | -.12 *** | -.06 *** | .36 *** | .02 | .06 *** | .09 *** | -.17 *** | -.34 *** | -.03 * | 1 | | | | |
| (11) | .25 *** | .28 *** | -.06 *** | -.02 | -.06 *** | .01 | -.07 *** | -.01 | .07 *** | .01 | 1 | | | |
| (12) | .32 *** | .37 *** | -.18 *** | -.02 | -.00 | -.07 *** | .06 *** | .15 *** | .08 *** | -.15 *** | .60 *** | 1 | | |
| (13) | -.01 | -.01 | -.20 *** | .04 *** | .15 *** | -.13 *** | .27 *** | .27 *** | -.01 | -.19 *** | -.27 *** | -.07 *** | 1 | |
| (14) | .11 *** | .10 *** | -.27 *** | .03 * | .17 *** | -.19 *** | .40 *** | .38 *** | .001 | -.22 *** | -.17 *** | .04 *** | .54 ** | 1 |

1) * $p<.05$, ** $p<.01$, *** $p<.001$

2) (1) 일반적두려움 (2) 구체적두려움 (3) 연령 (4) 성별 (5) 기혼 (6) 이혼 및 사별 (7) 소득 (8) 최종학력 (9) 피해경험여부 (10) 비공식통제 (11) 물리적무질서 (12) 사회적무질서 (13) 경비원 유무 (14) 보안장치 유무

3.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 간 민간경비의 조절효과 분석

먼저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 관계에서 민간경비의 조절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만일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조절변수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시사한다(조영일 외, 2015). 즉, 종속변수에 대해 독립변수의 주효과(main effect)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조절변수가 유의미한 경우에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조절변수에 의해 달라짐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분석을 실시한다. 먼저, 기본 1단계에서는 선행연구에 사용되었던 변수를 통제변수로 사용하여 공변수의 효과를 살펴본다. 그 후 단계 2에서 공변수의 효과를 통제하여 범죄두려움에 대한 지역 무질서와 민간경비의 영향력을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지역 무질서 \times 민간경비 유무’의 상호작용변수를 투입하여 조절효과를 추정한다. 조절효과 해석의 편의를 위해 조건화 효과(조절변수의 대표적 회귀선 기울기)를 시각화했다(Bauer & Curran, 2005).

1) 통제변수와 범죄두려움

<표 3>은 기존 선행연구들이 제시했던 변수를 통제변수로,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표 3> 통제변수와 범죄두려움의 회귀분석 결과 (단계 1)

| | | 모델 1(일반적두려움) | 모델 2(구체적두려움) |
|------------------|---------|----------------|----------------|
| | | β (S.E.) | β (S.E.) |
| 통 제 변 수 | 연령 | -.12(.01) *** | -.11(.01) ** |
| | 성별 | .29(.02) *** | .15(.02) *** |
| | 기혼 | .09(.04) *** | .02(.04) |
| | 이혼 및 사별 | .09(.05) *** | .02(.04) |
| | 소득 | .02(.01) | .03(.01) *** |
| | 최종학력 | .03(.01) † | .01(.01) |
| | 피해경험 여부 | .05(.32) ** | .01(.27) *** |
| | 비공식 통제 | -.08(.02) *** | -.01(.01) |
| N | | 6,919 | 6,919 |
| Adjusted R^2 | | .120 | .045 |
| F | | 119.05 *** | 42.10 *** |

†<.1, * p<.05, ** p<.01, *** p<.001

모델 1은 일반적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사용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약 12%의 설명력을 보였으며($F=119.05, p<.001$), 월평균 소득을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 두려움을 종속변수로 측정한 모델 2($F=42.10, p<.001$)는 약 5%의 설명력을 나타내며 일반적 두려움보다 그 설명력이 약 7%p 낮게 나타났다. 또한 혼인여부, 최종학력,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주지 않았다.

2) 일반적 두려움과 지역 무질서, 민간경비의 조절효과

<표 4>는 모델 1에서 실시했던 공변수의 효과를 통제한 후 지역 무질서(물리적/사회적 무질서)와 민간경비(경비원/보안장치)가 일반적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지역 무질서와 일반적 두려움 사이에서 민간경비가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2단계와 3단계를 순차적으로 보여준다.

먼저 모델 3은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 지역 무질서와 경비원의 여부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21.66%의 설명력을 보였으며($F=174.90, p<.001$), 이는 단계1에서 보다 설명력이 약 10%p 상승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물리적 무질서와 사회적 무질서는 일반적 두려움에 있어 99% 유의수준에서 통계적 유의미성을 가졌다. 즉, 개인의 지역 무질서에 대한 높은 인지는 개인의 범죄두려움 상승에도 영향력이 있음을 뜻한다. 다음으로 조절변수로 사용될 경비원의 유무는 부적인 영향을 나타냈으며, 약 10%의 유의수준에 걸쳐있어 미약하지만 의미부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경비원이 있는 경우 .02 정도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된다고 볼 수 있다.

모델 4는 위계적 회귀분석의 세 번째 단계로 이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하는 질문이다. 일반적 두려움에 대해 지역 무질서가 갖는 영향력을 경비원 유무로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러나 일반적 두려움에 있어 지역 무질서와 경비원 유무는 상호작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경비원의 주효과 추정만이 가능했다. 따라서 두 모델의 설명력에도 변화가 없었다.

모델 5는 보안장치 유무에 따른 일반적 두려움에 대한 영향을 살펴본 것으로 위계적 회귀분석 단계 2에 해당한다. 그 결과 모델의 설명력은 22%로 나타났다($F=179.08, p<.001$). 조절변수인 보안장치의 유무는 회귀계수 .07로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냈다($p<.001$). 위계적 회귀분석의 3단계인 모델 6은 지역 무질서가 일반적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데, 보안장치 유무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F=151.81, p<.001$). 그 결과, 물리적 무질서와 보안장치 유무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1$). 즉 물리적 무질서와 범죄 두려움 사이에서 보안장치가 조절효과를 가지며, 구체적으로는 보안장치가 1단계 증가할 때 물리적 무질서가 일반적 두려움과 가지는 관련성이 .08만큼 감소함을 의미한다.

〈표 4〉 일반적 두려움 다중회귀분석 결과 (단계 2, 3)

| | | 모델 3 | 모델 4 | 모델 5 | 모델 6 |
|------------------|-------------|----------------|----------------|----------------|----------------|
| | | β (S.E.) | β (S.E.) | β (S.E.) | β (S.E.) |
| 통 제 변 수 | 연령 | -.07(.01) *** | -.07(.01) *** | -.07(.01) *** | -.07(.01) *** |
| | 성별 | .30(.02) *** | .30(.02) *** | .29(.02) *** | .29(.02) *** |
| | 기혼 | .10(.05) *** | .10(.05) *** | .09(.04) *** | .09(.04) *** |
| | 이혼 및 사별 | .10(.05) *** | .10(.05) *** | .09(.05) *** | .09(.05) *** |
| | 소득 | .04(.01) ** | .04(.01) ** | .02(.01) | .02(.008) |
| | 최종학력 | .04(.01) * | .04(.01) * | .02(.01) | .02(.01) |
| | 피해경험 여부 | -.02(.32) * | .02(.32) * | .02(.32) * | .02(.32) * |
| | 비공식 통제 | -.07(.02) *** | -.07(.16) *** | -.06(.02) *** | -.06(.02) *** |
| 독 립 변 수 | 물리적 무질서 (A) | .13(.02) *** | .12(.02) *** | .15(.02) *** | .17(.03) *** |
| | 사회적 무질서 (B) | .22(.02) *** | .22(.02) *** | .21(.02) *** | .19(.03) *** |
| | 경비원 유무 (C) | -.02(.02) † | -.05(.08) † | | |
| | 보안장치 유무 (D) | | | .07(.04) *** | .09(.13) ** |
| 상 호 작 용 | (A)*(C) | | .02(.04) | | |
| | (B)*(C) | | .01(.04) | | |
| | (A)*(D) | | | | -.08(.05) † |
| | (B)*(D) | | | | .06(.06) |
| N | 6919 | 6919 | 6919 | 6919 | |
| Adjusted R^2 | .216 | .216 | .220 | .221 | |
| F | 174.90 *** | 148.06 *** | 179.08 *** | 151.81 *** | |

† <.1, * p<.05, ** p<.01, *** p<.001

3) 구체적 두려움과 지역 무질서, 민간경비의 조절효과

<표 5>는 지역 무질서와 구체적 두려움의 영향에 대하여 민간경비의 조절효과 여부를 검증한 표이다. 먼저 구체적 두려움과 지역 무질서는 정적인 영향력을 나타내며, 지역 무질서가 높을수록 개인의 구체적 두려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 7(F=135.27, p<.001)과 모델 8(F=114.69, p<.001)에서 경비원 여부는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경비원의 유무가 구체적 두려움에 있어 주효과와 지역 무질서와의 상호작용효과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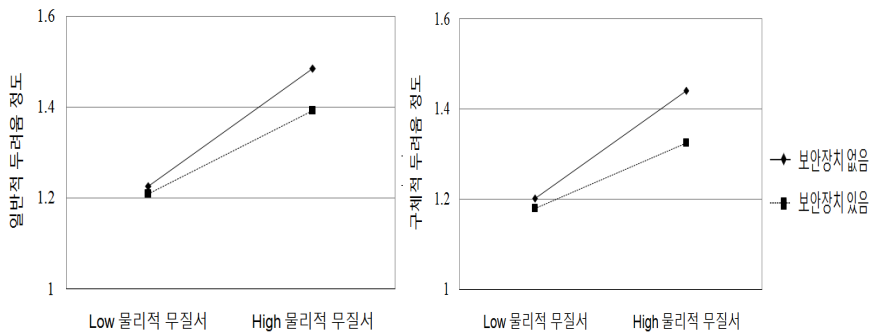
<표 5> 구체적 두려움 다중회귀분석 결과 (단계 2, 3)

| | | 모델 7 | 모델 8 | 모델 9 | 모델 10 |
|-------------------------|------------------|----------------|----------------|----------------|----------------|
| | | β (S.E.) | β (S.E.) | β (S.E.) | β (S.E.) |
| 통 제 변 수 | 연령 | -.05(.01) ** | -.05(.01) ** | -.05(.01) ** | -.05(.01) ** |
| | 성별 | .16(.02) *** | .16(.02) *** | .16(.02) *** | .16(.02) *** |
| | 기혼 | .03(.04) | .03(.04) | .03(.04) | .02 (.04) |
| | 이혼 및 사별 | .03(.04) | .03(.04) | .02(.04) | .02(.04) |
| | 소득 | .05(.01) *** | .05(.01) *** | .03(.01) * | .03(.01) * |
| | 최종학력 | .002(.01) | .003(.01) | -.01(.01) | -.01(.01) |
| | 피해경험 여부 | .04(.25) *** | .04(.25) *** | .04(.25) *** | .04(.25) *** |
| | 비공식 통계 | .01(.01) | .01(.01) | .02(.01) | .02(.01) |
| | 독 립 변 수 | 물리적 무질서 (A) | .11(.01) *** | .09(.02) *** | .12(.01) *** |
| 사회적 무질서 (B) | | .30(.15) *** | .30(.02) *** | .29(.01) *** | .26(.02) *** |
| 경비원 유무 (C) | | .004(.02) | -.02(.06) | | |
| 보안장치 유무 (D) | | | | .08(.03) *** | .11(.09) ** |
| 상 호 작 용 | (A)*(C) | | .05(.03) | | |
| | (B)*(C) | | -.03(.03) | | |
| | (A)*(D) | | | | -.10(.05) ** |
| | (B)*(D) | | | | .08(.05) |
| N | | 6919 | 6919 | 6919 | 6919 |
| Adjusted R ² | | .176 | .176 | .1813 | .1818 |
| F | | 135.27 *** | 114.69 *** | 140.32 *** | 119.24 *** |

†<.1, * p<.05, ** p<.01, *** p<.001

모델 9는 구체적 두려움과 보안장치 여부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의 단계 2이다($F=140.32, p<.001$). 보안장치 여부는 유의수준 99%에서 범 죄두려움에 정적인 영향을 나타냈다. 단계 3인 모델 10은 물리적 무질서, 사회적 무 질서와 구체적 두려움의 관계가 보안장치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표이다($F=119.24, p<.001$). 그 결과 물리적 무질서와 보안장치 설치여부는 유의수준 $p<.01$ 하에서 상호작용효과가 존재했다. 즉, 물리적 무질서와 구체적 두려움의 관계에서 보안장치 여부는 조절효과가 있었으며, 이는 보안장치가 1단위 증가할 때 물리적 두려움과 범죄두려움이 가지는 관련성이 -.1만큼 감소함을 나타 낸다.

앞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 조절효과를 [그림 1]에 시각화하여 나타냈다. 높은 물리적 무질서를 나타내는 환경에서 보안장치가 있을 경우는 보안장치가 없을 때 보다 상대적으로 범죄두려움이 낮게 나타났다.



[그림 1] 범죄두려움에 대한 물리적 무질서와 보안장치의 상호작용효과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1. 결론

범죄의 진화는 범죄두려움을 가중해 사회 안전을 더욱 위협했고, 그 반대급부로 국민의 안전 욕구와 치안 수요는 크게 증가했다. 민간경비는 이를 토대로 급격히 성장해 사회 안전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두려움과 민간경비의 관계에 대한 경험연구는 부족한 실정이고, 범죄두려움 유발요인과 범죄두려움 사이에서 민간경비의 조절효과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지역 무질서와 민간경비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범죄 유발요인인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민간경비 유무의 영향력과 방향성을 검증해 보았다.

먼저 위계적 회귀분석의 단계1에서는 취약성 모델에서 제시했던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비공식적 통제변수가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 보았다. 이는 공변수의 효과를 통제함으로써 단계2와 단계3에서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지역 무질서와 민간경비의 영향력을 뚜렷하게 확인하기 위함이다. 단계1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데, 일반적 두려움에는 연령, 성별, 혼인여부, 최종학력, 피해경험 여부, 비공식 통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다음으로 구체적 두려움에는 혼인여부, 최종학력, 지역의 비공식적 통제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단계1의 결과는 범죄두려움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들과 일치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통제변수를 투입한 후 지역 무질서와 민간경비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역 무질서를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범죄두려움은 증가했고, 이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지지했다(이재영, 2011; May & Dunaway, 2007; Markowitz, et al., 2001). 다음으로 민간경비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민간경비 중 경비원의 유무는 구체적 두려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일반적 두려움 감소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즉 경비원의 존재가 일반 시민의 무형의 두려움을 완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안장치 유무는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에 모두 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는 개인이 특수 잠금장치와 방범장치, 도난 경보시스템 등을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범죄두려움이 높은 수준임을 뜻한다. 허경미와 박영주(2008)의 연구에서 방범장치

등의 보안장치는 개인적 노력의 일환이고, 범죄두려움이 높은 수준일 때 보안장치의 설치가 개인에 의해 선택된다는 설명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Gorden과 Buchana (2013)가 언급한 것처럼 집 내외의 보안장치가 오히려 피해에 대한 불필요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핵심 질문이라 할 수 있는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민간경비의 조절효과를 분석했다. 먼저 경비원의 경우는 일반적 두려움에서 주효과만을 나타냈으며, 지역 무질서와의 상호작용에 있어서는 일반적 두려움과 구체적 두려움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이는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가 경비원의 유무에 관계없이 일정함을 뜻한다.

한편 지역 무질서와 범죄두려움의 관계에서 보안장치 유무가 갖는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보안장치 여부 × 물리적 무질서 정도’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미했다.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 보안장치가 있는 경우는 없는 경우보다 범죄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는 보안장치의 존재는 물리적 무질서가 높은 곳에서 범죄불안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정책적 제언 및 한계

분석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경비원은 그 자체로 범죄두려움을 완화했다. 그러나 범죄두려움이 특히 가중되는 무질서한 환경에서 경비원의 존재는 지역 무질서의 범죄두려움 유발 정도를 제한하지 못했다. 이와 달리 보안장치는 무질서한 환경에서 가중된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킬 수 있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민간경비 적용 시 비용효율성과 수단 적합성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낙후된 지역일 수록 무질서가 높게 나타나므로, 낙후지역의 치안 정책은 보안장치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세제혜택이나 보조금 지원을 통해 개인의 방범창, 비디오폰, 출입카드 등의 설치를 유인하고, 일선 경찰서와 연계 가능한 경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시도들은 범죄두려움에 대한 관리를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 서비스의 영역으로 인정할 때에 가능한 것이다.

한편, 경비원은 범죄 예방의 실질적 기능을 담당해 치안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주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무질서한 환경에서 경비원의 범죄두려움 조절효과 없음은 경비원의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역할과 개인의 신뢰가 두텁지 못한 까닭이라

볼 수 있다. 결국 경비원의 역할과 책임, 재량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의 사업개선 지구는 무질서가 빈번한 지역에 별도의 세금이나 요금을 부과해 경비업체로 하여금 청소서비스, 향상된 보안 서비스, 노숙자 관리를 도맡게 했다(권도이, 2016). 이러한 방법으로 서비스 수혜자 또는 접촉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면 범죄두려움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경비원의 역량 강화는 자격 요건의 강화, 일선 경찰과의 협력 강화, 재량의 확대와 책임 강화를 통해 도모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민간경비를 활용한 경험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지역 무질서와 민간경비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민간경비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주거형태(아파트/오피스텔 거주)가 가구범죄피해의 예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지선, 주익현, 2015; 박성훈, 2011; 강지현, 2016에서 재인용)를 토대로 할 때, 주거형태를 세분화해 분석하지 못한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참고문헌

- 경찰청 (2016). 경찰백서.
- 강민완 (2011). 상점절도 방지를 위한 상황적 경비기법의 효과성.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 27호, 9-32.
- 강지현 (2016). 1인 가구의 범죄취약성에 대한 연구.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 곽대경·이승철 (2010). CCTV에 대한 인식과 지역적 환경요인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9호, 11-46.
- 권도이 (2016). '묻지마 범죄' 예방을 위한 민간경비 활용방안. 한국시큐리티정책학회 가을학술대회 세미나자료집, 10월 27일. 아산: 잘교육원 정종수 홀
- 공배완 (2010).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과 민간경비의 협력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제 7권 제 2호, 51-71.
- 김기현 (2011). 미래사회 변화에 따른 민간경비업체의 기여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학술 발표논문집, 제12호, 1-26.
- 김상운·신재현 (2012).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민간경비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제32호, 33-63.
- 김성연 (2004). 일상영역에서의 시장의존적 보안추구 원인에 관한 경험적 논증, 형사정책연구, 제 60권, 277-322.
- ____ (2009). 상황적 범죄예방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 77권, 1045-1079.
- 김용현 (2016). 한국 민간경비 연구의 분석과 발전방향, 한국경찰연구, 제15권 제1호, 59-82.
- 김지선·주익현 (2016). 가구범죄피해의 발생과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전국범죄피해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 박성수·김미선 (2012). 민간경비원의 직무환경에 따른 인식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한국민간경비학회, 제 11권 제 4호, 153-175.
- 박성훈 (2011). 한국의 도시지역 범죄피해의 지역적 맥락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정선·이성식 (2010).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수준적 접근 : 주요 모델들의 검증, 형사정책연구, 제 83권, 173-203.
- 이민형 (2012). 지역문화축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경비제도 구축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1권 제 2호, 163-182.

- 이성식·박정선·이정환 (2012). 지역 무질서, 집합효율성, 범죄두려움의 관계: 세 모델의 검증, *피해자학연구*, 제 20권 제 1호, 487-509.
- 이용주·장석인 (2012). 민간경비원의 변혁적 리더십이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팔로워십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융합보안논문지*, 제 12권 제 2호, 23-32
- 이재영 (2011). 범죄피해경험과 지역특성의 상호작용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제7권 제 3호, 231-250.
- 장안식 (2012). 범죄피해에 대한 대중의 두려움: 개인적 두려움과 대리 두려움의 비교, *피해자학연구*, 제 20권 제 2호, 87-119.
-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조성구·김태민 (2012). 민간조사업의 도입에 관한 질적연구, *한국경찰학회보*, 제 33권, 241-267.
- 조영미·김지현·한우리·조유정 (2015). 임상 연구에서 조절효과 및 매개효과 비교 및 통합: 개념 정의 및 통계 모형,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34권 4호, 1113-1131.
- 조운오 (2015). 필리핀 주택 보안장치와 범죄두려움과의 관계: 양헬레스 한국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경찰연구*, 제 14권 제 3호, 225-280.
- 통계청 (2016). 2016년 사회조사, 서울: 통계청
- 허경미·박영주 (2008). 기계경비시스템 이용이 소규모 상점주의 범죄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 제32권, 437-475.
- Bauer, D. J., & Curran, P. J. (2005). Probing Interactions in Fixed and Multilevel Regression: Inferential and Graphical Technique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0(3): 373-400.
- Bayley, D., & Shearing, C. (1996). The Future of Policing, *Law and Society Review*, 30(3): 585-606
- Benson, B. L. (1998). *To Serve and Protect: Privatization and Community in Criminal Justice*.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 Braungart, M. M., & Braugart, R. G., & Hoyer, W. J. (1980). Age, Sex and Social Factors in Fear of Crime, *Sociological Focus*, 13:55-66
- Collomb-Robert, N. et al. (2004). Cambridgeshire Distraction Burglary and Rogue Traders Taskforce: An Evaluation, Available online on: <http://www.crimereduction.gov.uk/burglary83.htm>
- Covington, J. & Taylor, R., B. (1991). Fear of Crime in Urban Residential Neighborhoods. *The Sociological Quarterly*, 32(2): 231-249.
- Ferraro, K., F. (1995). *Fear of Crime: Interpreting Victimization Risk*. New York: SUNY Press.
- Garofalo, J. (1981). The Fear of Crime: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2:839-857

- Gibson, C., Zhao, J., Lovrich, N., & Gaffney, M. (2002). Social Integration, Individual Perceptions of Collective Efficacy, and Fear of Crime in Three Cities. *Justice Quarterly*, 19: 537-564.
- Gorden, C., & Buchana, J. (2003).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f Doorstep Crime: Are the Crime-Prevention Strategies More Harmful than the Crime?. *The Howard Journal*, 52(5): 498-515.
- Hale, C. (1996). Fear of Crime: A Review of the Literature. *International Review of Victimology*, 4: 79-150
- Haynie, D. L. (1998). The Gender Gap in Fear of Crime, 1973-1994: A Methodological Approach. *Criminal Justice Review*, 23(1): 29-50.
- Hough, M. (1995). The Impact of Victimization: Findings from the British Crime Survey. *Victimology*, pp: 1-4.
- Lewis, D., A. & Salem, G. (1986). Fear of Crime: Incivility and the Production of a Social Problem. *New Brunswick: Transation Books*.
- Markowitz, F. E., Bellair, P. E., Liska, A. E., & Liu, J. (2001). Extending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Model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Cohesion, Disorder, and Fear. *Criminology*, 39, 293.
- Mesch, G. S. (2000). Perceptions of Risk, Lifestyle Activities, and Fear of Crime. *Deviant Behavior*, 21(1): 47-62.
- McCrie, R., D. (1992). Three Centuries of Criminal Justice Privat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Privatizing the United States Justice System: Police, Adjudication, and Corrections Services from the Private Sector*, NC: McFarland & Company, Inc.
- Norris, F., H., & Kaniasty, K. (1992). A longitudinal Study of the Effects of Various Crime Prevention Strategies on Criminal Victimization, Fear of Crime, and Psychological Distres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0(5): 625-648.
- Perkins, D. & Taylor, R. (1996). Ecological Assessment of Community Disorder: Their Relationship to Fear of Crime and Theoretical Im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4: 63-107.
- Rountree, P., W. & Land, K., C. (1996). Burglary Victimization, Perception of Crime Risk, Routine Activities,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3:147-180.
- Sampson, R., J., Raudenbush, S., W. & Earls, F. (2009). Neighborhoods and Violent Crime: A Multilevel Study of Collective Efficacy. *Urban Health: Readings in the Social, Built, and Physical Environments of US Cities*. 77-97.

- Skogan, W. G., & Maxfield, M. G. (1981). *Coping with Crime: Individual and Neighborhood Reaction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Skogan, W., G. (1990). *Disorder and Decline: Crime and the Spiral of Decay in American Neighborhoods*. New York: The Free Press.
- Taylor, R., B. & Hale. C. (198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Fear of Crim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7(1): 151-189.
- Vilata, C. J. (2012). Fear of Crime and Home Security Systems. *Police Practice and Research*. 13(1): 4-14.
- Villarreal, A. & Silva, B. (2006). Social Cohesion, Criminal Victimization, and Perceived Risk of Crime in Brazilian Neighborhoods, *Social Forces*, 84(3): 1725-1753.
- Wilson, J., Q. & Kelling, G. (1982). The Police and Neighborhood Safety: Broken Windows. *Atlantic Monthly*. 127: 29-38.

【Abstract】

**The Effect of the Community
Incivility on the Fear of Crime**
- Focused on Moderation Effect of Private Security -

Kim, Da-Eun · Park, Jong-Seung

Today, crime has become a serious threat to social safety so citizen's desire for safety has increased. So the private security has emerged as a new industry for safety and security and became a crucial component. Private security is responsible not only covers the limitations of the police work, but also fills citizen's desire of security. However, quantitative research on private security has rarely been done and the results of the private security study are not effectively utilized due to biased research trends in Korea.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community incivility on fear of crime and the moderation effect of private security.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research uses 6,919 samples from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2014) and conducts hierarchical regression through STATA 13.0 program.

As a results, private security guard showed the main effect on the generalized fear of crime, but had not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raction effect with the community incivility. On the other hand, the moderation effect of electronic secur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relation to the community incivility and specific fear of crime. In other words, in a place with high physical disorder, the fear of crime is relatively low in the case of the electronic machine, compared with the case where there is no electronic machine.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based on these results are discussed in the conclusion.

Keywords: Private Security, Community Incivility, Fear of Crime, Private Security Guard, Electronic Security